

숭대극회 제 2회 신입생 환영공연

로
물
루
스
대
제

작 : F. 뒤렌마트
기획 : 박정극
연출 : 정석용

일시 : 1997년 5월 29일 (목) 6시
30일 (금) 2시, 6시
31일 (토) 1시, 5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극회장
조태희 (섬유92')

모시는 글

우리는 모른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른다. 하루란 무엇일까?

우리는 모른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지만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기 그지없는 요즘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승대극회 제 21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연출
정석용 (경영90')

작품분석 및 작가연구

I. 작품연구

1. <로물루스 대제>의 副題는 “非歷史的이면서 歷史的인 喜劇”이다. 이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과 시간 그리고 장소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 로마제국 최후의 皇帝인 로물루스의 마지막 하루를 묘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극처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된 것이다. 登場人物과 시대적 상황은 실제 사실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게 묘사된다. 로마의 建國神話에 나오는 로마의 시조와 로마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같다는 것도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된다.

“로물루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16살 이었다. 그가 황제 자리를 물려나 카파니아의 루클별장으로 물러났을 때가 17살 이었다. 연금 6,000金貨, 그가 총애하는 닭은 로마를 불리었다. 이것이 歷史的인 것이다. 나는 그를 성인으로, 그의 통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大帝라 부른다.”

즉 이것은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着想에 의해 再構成함으로써 비역사적인 것으로 虛構화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작가는 무능한 황제로 기록된 역사적 인물인 로물루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를 비역사적인 인물로 패러디하여 오히려 ‘부정한 國家를 고발하는’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2. <로물루스 대제>의 時代비판성

현대사회는 급속한 機械文明의 발달로 인해 정신과 물질이 융화되지 못하는 二元化, 오히려 정신보다 물질을 優位에 두는 물질만능의 풍조, 그것으로 인한 가

치관의 도치, 인간성의 파멸, 공리주의,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팽배한 世態로 변모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렌마트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 부정적인 유형의 인물들의 풍자를 통해 현대사회의 병폐적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시종인 피라무스와 아킬레스에 의해 무사안일의 병폐적인 官僚主義을 비판하고 케사르 루프라는 바지공장주인에 의해 黃金萬能의 資本主義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에밀리안이라는 인물에서 약혼녀 레아를 포기하면서까지 케사르 루프의 金力으로 조국을 구원할 가능성을 찾는 近視眼的인 英雄主義를 묘사하고 있다. 또,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고 皇后로서 榮達을 유지하기 위해 로물루스와 정략결혼을 하는 황후 율리아를 통해 현대인의 利己主義의인 면을 빗대고 있다.

II. 작가연구

1. 뒤렌마트의 喜劇的 특성

<연극의 제문제, 1955>에서 최초로 演劇理論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던 뒤렌마트는 그의 작품세계의 기본 테마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쉴러의 역사주의 형식으로는 극복해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날과 같은 비극적 염원들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이 세계를 말살하려는 자로부터 연출되거나 대량 살육기에 의해 짐행되어가는 비극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의 ‘오늘날’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시간상으로 한계를 규정짓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그가 인식하고 있는 현대란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폭력화되어지고 있는 지대한 集團의 대립로 인해 인류의 생존에는 아랑곳 없이 極端의 인 몰락으로 치닫는 불안한 시대, 그리고 대량학살의 무기인 원자폭탄의 발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가 상실되어가고 있는 시대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悲劇的 배경을 갖는다. 그러므로 뒤렌마트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가 설정한 비극적 배경과,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발할지도 모를 이 세계의 위험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과 같은 혼란된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희극이 적절한 형식이라고 한다.

“이 지구상의 폭군들은 시인의 작품에는 감동을 받지 않고, 그들의 悲歌에는 하품을 하며 英雄讚歌는 동화로 취급해 버리고, 宗教의 문학앞에서는 잠들어 버린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에 대한 嘲笑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극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세계의 悲劇性을 더욱 조소하기 위하여 현식은 점차로 더 구체적인 喜劇性을 띠게된다. 뒤렌마트가 희극을 선택하게 된 다른 하나의 동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위에서 上演되는 작품과의 사이에 [거리 Distanz]를 생성하는 데 희극이 그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疏外效果]의 의도로 도입된 것인데, 뒤렌마트는 이 효과에 대해서 ‘비극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하여 과거를 마치 현재의 것처럼 보여줌으로서 거리감을 해소시킨다. 그러나 희극은 거리감을 생성시킨다. 나는 이것을 희극의 본질적인 요소라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희극이 가져다 주는 무대와 관객사이의 거리감은 무대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관객이 批判的 안목으로 관찰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희극은 비극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파고 들지 않으면서 작용하며, 웃음은 희극적인 대상을 관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희극속의 광대에게 웃는다. 광대가 어떤 상황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꼴은 우리보다 그가 못난 인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와 자기를 同一視하지 않고 客觀化한다. 따라서 희극은 희극적인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생기는 거리로 인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 喜劇은 喜劇의인 예술의 虛構性 그대로를 가지고 작용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작품을 조망하는 행위는 곧 작품 속의 主人公과의 거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희극성이 부여된 主人公은 관객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거리감으로 인하여 그의 世界改善에 대한 외침을 그들에게 충실히 전달해주게 된다.

2. 그의 다른 작품들

<미시시피씨의 결혼>, <그렇게 쓰여졌도다>, <천사 바빌론에 오다>, <老婦人の訪問>, <物理學者들> 등

CAST

무대위의 사람들.



박정극 (법93')

해설자



현승옥 (불문90')

제노

"남다른 데가 있어야 경
작이 됩니다."



양진 (일본96')

레이아

"할 말이 없다. 아니
너무 많은 지도 모르지.
그리 아이러니컬한 것도
없다. 알 맘에는 어오각
마은 이유가 이기도 암
운..."



정재훈 (수학95')

아폴리오,
필락스

"내 인생에 페베란
없다. 난 날 믿으니까."



서정우 (컴퓨터96')

로모루스대제

"조금만 비길으면 세상이
즐겁다."



안병진 (전전통97')

피라모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명오 (전전통97')

로트류스 (내무장관)

"끙, 연극
갈림길
바로 이그에서
나는
무얼하고 있나....!!!"



정석용 (경영90')

오도아 케르



신하영 (건축95')

율리아

"始終
腦內雨中"
- 오중일 머리속에
비만 내렸다.



이세훈 (전전통97')

에미리아, 게르만이

"어제는 끔이고 내일은
환상이다. 하지만 오늘은
인생의 보배이다."



차상우 (기계97')

스프리우스
티투스 맘마

"지금 네게 필요한건 잠
자와 시간과 그리고 암
께 할 수 있는 그대."
- 아 피고하다.



기획
박정극 (법93')

기획의 변

친구들이 보고싶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던.....
시간이 너무 빨리간다.
조금만 있으면 공연도 끝이 난다.
그러면 보고싶던 친구들을 볼 수 있겠구나.



조명
채종석 (기계96')



음향
이경희 (컴퓨터96')

STAFF



무대밖의 사람들..
김상겸 (전자91')



무대장치
이종희 (전기91')



무대장치
한석운 (기계91')



무대미술
김은성 (정통92')



무대미술
김형근 (국문92')



홍보
이명성 (기계92')



조명
이명식 (산공93')



분장
서수경 (정통94')



분장
임가영 (물리94')



분장
이정미 (섬유95')



의상
박지희 (정외95')



의상
박영신 (국문96')



소품
김명진 (전전통96')



진행
홍성원 (경영96')



진행
박은혜 (사학96')

상대극회 정기공연연보 1921 - 1997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홍회소연극 "칠세영용 나풀레옹의 말로" 대미국 노예의 탐"		
	1923년 7.7, 21	천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엘넷창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당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페공으로 돌아오다"	이 반	진진호
		황영식작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횃불의 꿈"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작		김양기
7	1971년 [4]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삼화" 윤조병작 "남해해독에 화하여" 안도 채홍작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디스작 "도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작		정종화
				주정석
				한영재
				유근혜
				차현재
8	1971년 11.4, 5, 11	"치적령의 그림자" 산 오케이사작		차현재
9	1972년 5.21, 22, 23	"생일파티" H.핀터작		한영재
10	1973년 15.21, 22, 23	"비시시피씨의 결혼" F.피렌마트작		고봉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핀터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 25, 28, 30	"정희의 사람들"(전5막) A.베케트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병" Max Frisch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넷" 장 플로드 판 이탈리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행" 장 플로드 판 이탈리작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쉐터작	박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쉐터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쉐터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작		정제호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대석작	이정일	황정순
50	1994년 5.26, 27, 28	"굿닥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소장호
51	1994년 9.29, 30, 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홍미 작	현승옥	류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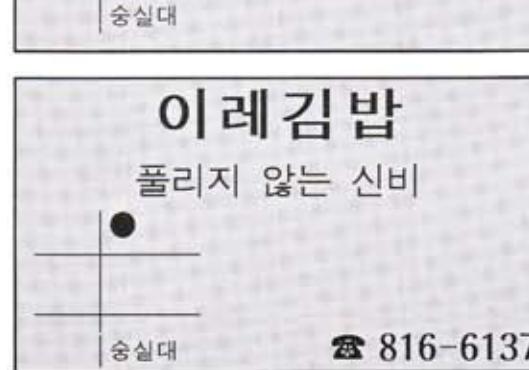
상대극회 신입생활연공연연보 1975 - 1996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작	엄세범	박영진
24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피렌마트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률작	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 13	"끼리끼리" A.베케트작	임태웅	지숙
27	1982년 10.7, 8	"섀도우 버스" M.크리스토퍼작	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의 결혼" F.피렌마트작	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레비" John Bowne작	이원우	오승애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eh crucible) A. Miller작	이종규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변론소" John Stoltenberg작	차세훈	이종섭
32	1985년 5.9, 10, 11	"빈민궁" Maxim Gorky작	김상현	이종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스키	허승민	충기법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쉐터작	허성무	허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뿔소" F.이오네스코작	안상준	충기법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종선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해" A. Camus작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작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데뇌?, 뜻내놔!" Dario FoFF	권태수	충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병작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T.S.Eliot작	오정열	이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작	진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9.1, 2	"한복연대기" 황석영작	천승범	이영인
44	1991년 5.30, 31, 6.1	"농일파티" H.핀터작	남재우	관승혜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렬작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작	홍석환	충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그랜드의 죽음" A. Miller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맥시" 김상수작	소장호 이정성	박원상
50	1993년 10.12, 13, 14	"나의 죽임오렌지나무" JM 허스본셀레스작	김운성	남재우
51	1994년 3.7, 8, 9	"자살" 김현목작	한석훈	손미라
52	1995년 9.5, 6, 7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윌리암즈작	조태희	이충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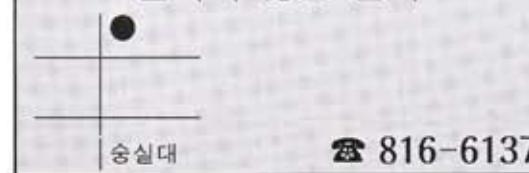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물" W. Anning 작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작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꽃" 이강백 작	한 철	정제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 작	이영환	도세환
6	1982년 3.24, 25	"임금님 꾸는 달나귀 괴" 김용락 작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블랙코메디" 피터 쉐터작	진희식	홍여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작	차세훈	길민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t. V. Millay 작	이영민	하승연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샌리 일센작	이갈영	김정은 최상선
11	1987년 3.12, 13, 14	"더리운 손" J.P. 사르트로작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작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mus작	홍택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ß-β	이영민 안상준	박체숙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작	정현용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먹고 물리시고" 이근삼작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매두사" Georg Kaiser작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왕자" 생백뤼베리작	이명성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작	양명호	정석용
20	1996년 5.30, 31~6.1	"울어라 빛고동아" 성준기작	정제호	김봉근

캠퍼스 당구장
< 신장 개업 · 최신식 시설 >



이레김밥
풀리지 않는 신비



전공필수
호프, 차 라이브음악

821-8150

헬포츠 헬스센터
건강한 승실인!

817-1780

들무새

편안한 분위기의 전통주전

승실대

☎ 824-8803

청운식당

어머니의 손맛

승실대

☎ 816-1001

현대문구

복사, 마스터, 제본

승실대

People 당구장

People이 People로 모인다.

승실대

☎ 812-1823

승실상회

모든 식료품은 승실상회로!

승실대

밀라노

호프와 경양식의 조화

Big Bear 칵테일전문점

취향에 맞는 맛을 느껴보세요.

승실대

☎ 812-4974

할머니손 분식

우리의 할머니가 만든…

후문

Cupid

큐피드가 술의 신인가?

승실대

자매분식

승실대

☎ 816-9835